

“이재명 대세 vs 이낙연 반전”...민주당 경선 화두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

경제적 어려움 호소 여전
원팀 정권 재창출 당부

지지후보 승패 엇갈려
후유증 우려 시각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앞두고 맞이한 추석 명절의 최대 화두는 후보들에 대한 관심사였다.

특히 이번 주말 광주·전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중 누가 승리할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지후보의 성향에 따라 지지하는 이유와 승패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선 후유증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의원들은 추석 민심을 자신들 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했다.

이재명 대선캠프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광주 광산) 의원은 “이낙연 후보의 호남 대망론이 작동한다는 주장은 일반 시민의 인식과 거리가 있다”며 “일반 시민은 ‘이재명 대세’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경선에서도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후보가 반수를 넘길 경우 결선 없이 끝나는 것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호남 유권자들의 판단이고, 이재명 후보가 간신히 이긴다면 ‘잘하라’는 일종의 경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후보 전남 경선본부 상임본부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성남 대장동 재개발 때문에 여러가지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으나 잇그제 방송토론회 하면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다”며 “토론회를 시청한 분들은 다들 문제가 없는 사업인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들을 한다”고 이재명 후보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이재명 후보측 이형석(광주 북) 의원은 “지역 여론은 이재명 지사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최근 대장동 사건의 진실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국민의힘 주

장을 같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컸다”며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을 사퇴한 것도 ‘종로’라는 상징성이 있는 자리인데 쉽게 던졌다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컸다”고 전했다.

이낙연 캠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지, 특히 호남 경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에 대해 관심이 컸다”고 전했다.

이낙연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병훈(광주 동남) 의원은 “지역민들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치면서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면서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이 전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분위기가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를 돕고 있는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 불꽃 튀는 경쟁으로 인해 민주당 경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며 “이재명 지지자들은 목소리가 많이 커졌고, 이낙연 후보에게는 우호적인 시선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역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윤재갑(해남·진도·완도) 의원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면서 “다만 추석 명절 등이 겹쳐 투표율이 낮은 것은 문제다”고 밝혔다.

두 후보간 경선이 과열 되면서 향후 후유증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서로 너무 공격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많았다”며 “누가 되든 힘을 합쳐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당부말씀을 주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송갑석(광주 서갑) 의원은 “누가 후보가 되든 경선 후에는 뽕뽕 뽕뽕 민주 정부 4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며 “더 겸손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지역민들의 토로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주민들은 태풍이 비껴가서 천만다행이다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팍팍하다.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져 반기는 분위기였다”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경제도 살리는 부분에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 장성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백양사 휴게소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김생훈 기자

추석 광주·전남 코로나 확진자 급증

224명...타시도 방문 등 영향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광주·전남에서 22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명절 타시도 방문과 가족·지인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가 전체 환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5일간 확진자는 총 168명으로 집계됐다.

연휴 첫날인 18일 22명, 19일 35명, 20일 40명, 21일 40명, 이날 오후 6시 기준 31명이었다.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감염 사례다.

이 중 명절 연휴 타시도 방문·접촉으로 인한 확진자는 22명이었다. 가족 감염이 42명, 지인 감염이 36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해 명절 연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57명은 외국인 감염자들이다. 광산구 외국인 밀집 지역과 고용사업장에 대한 진단 검사로 현재가

지 2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도 28명에 달한다. 전남 가족 간 감염으로 북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1명, 2명의 재학생이 확진돼 학생, 교직원 등 386명이 검사를 받고 일부는 자가 격리됐다.

전남지역 확진자는 연휴가 시작된 18일부터 22일까지 총 56명이다. 이 중 33명이 타지역발 확진자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전남지역 확진자는 연휴 첫날인 18일 12명, 19일 6명, 20일 7명으로 안정세를 보이다 21일 23명으로 급증했다. /황애란·김용현 기자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극심한 정체...밤 10~11시 해소

전국 고속도로 470만대 이동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전국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졌다.

2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8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산JC-양산IC, 영동1터널부근-영동1터널, 신탄진휴게소-신탄부근, 양재부근-반포 등 총 38km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졌다. 부산 방향은 오산-남사부근 등 모두 6km 구간이 막혔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부근-서평택부근, 서평택분기점부근, 화성휴게소부근, 매송-용담터널, 일직분기점-금천 등 총 29km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였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남이분기점-서청주부근, 남이천IC-호법분기점, 경기광주IC-중부1터널 부근 등 총 10km 구간에서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새말부근-원주부근, 양지부근-양지터널, 마성터널부근 등 총 7km 구간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를 출발해 서울 요금소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부산 6시간, 목포 4시간 20분, 울산 5시간 40분, 광주 4시간 20분, 대구 5시간, 대전 2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470만대로 예측됐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9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4만대가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이날 귀경 방향 정체는 오후 4~5시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밤 10~11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민빈 기자

focus

- 전남도 섬 발전 중심지 우뚝 ▶3면
- 전남·경남 COP28 유치 총력전 ▶4면
- 광주 송정역·유스퀘어 터미널 가보니 ▶7면
- 해남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선정 ▶10면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민 김규연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